

## [2013 UC Berkeley Summer Session 참가 후기]

20120253 화학공학과 전지현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 UC Berkeley Summer Session에 다녀온 화학공학과 12학번 전지현입니다. 저도 가기 전 많은 선배님들의 후기를 읽고 Summer Session을 준비하였습니다. 제 경험도 아직 단기유학이나 Summer Session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출국 전 준비 사항

#### 1) Summer Session 등록

자신이 들을 수업을 정하고 세션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세션 신청기간에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름방학에 속하는 세션은 C, D, E 세션이므로 수업을 고를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registration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수업을 변경하고 싶다면 [telebear.berkeley.edu](http://telebear.berkeley.edu)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Earthquakes in your backyard'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전공보다는 교양과목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적절히 과학과 비과학이 조합된 과목이라 생각되어 선택했고 꽤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발표나 토론이 많은 수업은 아니지만, 과제의 유형도 다양하고 Field Trip도 있었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강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Hayward 단층 지역인 Berkeley의 특징을 잘 살린 수업이어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학점이 인정되는 강의를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어학연수 코스도 있었습니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실력 증진이 목적인 class였고 주제는 'American Culture through the media'였습니다. 저는 3주 코스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영어 회화 학원과 비슷한 분위기지만, 실제 여러 명의 외국인과 토의를 함으로써 영어 실력도 키우고, 주제의 특성 상 각 나라의 문화도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 2) 비행기표

빨리 알아볼수록 저가의 티켓을 구하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늦게 구매하여 170만원 대의 직항 United Airlines 항공사 티켓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일찍 알아보면 100만원 초반 대의 다른 항공사 티켓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Summer Session행이 결

정되는 순간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여행자보험

Summer Session 참가자의 경우 UC Berkeley에서의 별도 학생 보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보험을 들어서 가야 하는데, 저는 학교 안 국제관에 있는 여행사에서 보험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에 적힌 보험 조건을 말씀 드리면 알아서 해 주십니다. 가격은 8만원대였습니다.

4) 기숙사 or 집 구하기

보통은 기숙사를 많이 신청합니다.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와 국제학생용 I-house가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은 2000달러 대이고 meal point(학식이나 학교 내 카페에서 사용한 포인트)를 줍니다. 방학이라서 일반 기숙사와 I-house 둘 다 신청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많아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더 가까운 건물은 I-house입니다. 단, 둘 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빨리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일반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숙집을 구했는데, 하숙집을 구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저는 Facebook의 Berkeley 그룹 중 housing에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Facebook Berkeley 그룹은, bmail 계정을 받은 뒤 Facebook 계정으로 등록하면, 추천 그룹에 뜨거나 혹은 Berkeley에 단기유학이나 Summer Session을 다녀온 선배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ousing 그룹에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고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Facebook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눈 뒤 계약서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온라인 상 거래라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그룹은 Berkeley 메일 계정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위치나 내부 사진 등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600달러에 한달 반을 하숙 하였는데, 기숙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위치도 학교 바로 정문 앞 Bancroft way에 있어 통학하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기숙사는 너무 비싸고 meal point를 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외식을 자주 하므로 meal point가 많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 기숙사를 쓰는 친구들 중 절반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밥값은 이중으로 드는 것입니다. 요리를 직접 하는 등 밥을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기숙사보다는 하숙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비자

Summer Session의 경우 듣는 학점 수에 따라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D세션에 3unit을 들었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각 세션마다 full time student가 아닌 경우는 학생비자(F1, J1)를 받지 않아도 되며 ESTA만 발급 받아도 되었습니다. 만약에 5unit 이상을 들을 학생이라면 해당 세션의 full time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 경비

등록금과 비행기표, 보험, 기숙사 혹은 집 렌트비 등 미국에 가기 전 준비 비용으로는 약 5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생활비와 쇼핑으로 쓴 돈은 대략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원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제 돈은 550만원 정도 쓰였습니다.

학기가 끝난 뒤 미국 서부를 열흘간 여행을 했는데, 여행비용으로 약 130만원이 더 쓰였습니다.

## 3. 그 외

Summer Session 혹은 단기 유학 동안 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현지에서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해 가는데, 저는 체크카드 기능까지 있는 우리은행 국제학생증 ISEC를 발급해 갔었습니다. 학교 안에 우리은행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준비과정에서는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 가보니, ISEC 보다는 시티은행에서 발급 받는 ISIC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보편화 되어있었고, 또 시티은행은 미국에도 있어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비용은 더 비싸지만 미국에 가서 현금 인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우리은행보다는 시티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4. 글을 마치며

저는 단순히 외국 대학교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Summer Session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ummer Session에 참가한 다른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기회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각국의 국제 학생들, 먼저 국제 무대에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포항공대의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한국의 위상을 느꼈고 더 넓은 세상을 깨닫고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Summer Session이나 단기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셔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Summer Session을 준비하면서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까지도 두려워서 가지 말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ummer Session 약 한달 반을 지내고 돌아온 지금,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단기간이긴 하지만 외국 유학은 인생에 있어 아주 뜻 깊은 경험이 되고,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